

광주시, 재난대비 행동요령 책자 배포

비상시 시민행동요령 재난·사고유형별 안전수칙 등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제작



광주시는 재난발생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화하기 위해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을 책자로 제작,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에는 우리 집 안전점검표, 우리 지역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정보를 담았다. 또 비상시 행동요령, 생활안전, 자연재난 대비, 사회재난 대비 요령 등 각종 재난·사고유형별 안전수칙과 안전상식을 수록했다.

지역 거주 외국인의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어 시민행동요령 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거주 외국인인 국적 비율과 고려인마을 등을 고려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수은함유 의료기기 거점수거

혈압계 등 848점 수거…수집·운반비 95% 절감



광주시는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일괄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지역 의료기관 237개소에서 보관 중인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848점을 수거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거점수거한 의료기기 폐기물은 14~16일 광주환경공단에서 인천 소재 처리업체로 보내 전량 폐

기 처분했다. 2020년 2월 미나마타 협약수은제품 8종 제조·수출입 금지와 식약처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는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약 150만원의 수집·운반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거점수거를 통해 1건당 6만원으로 비용이 95% 절감됐다.

조일상 기자

북구, 아동학대 예방주간 운영

오는 25일까지…오늘 오후 기념식 개최

북구는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9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주간' 운영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이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고자 지칭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에 북구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해 기념식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펼친다.

기념식은 20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을 주제로 열린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선언문 낭독 ▲아동학대 예방 상징 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또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꿈나무사회복지관과 함께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역할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펼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인식 개선 ▲신고 활성화·조기 발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피해 아동보호·사후관리 강화 등 4개 중점 분야를 설정, 분야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현안 기자

서구, 청소년 유해요소 차단 캠페인

수능 마친 후 마약류·주류·불법광고물 등 사전 예방



서구는 지난 17일 상무지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요소 차단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보건소, 서구청 도시재생과,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40여 명은 유해가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청소년주류판매 및 고음과 불법전단지 배포 등을 방지하고자 업주들에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연주 서구 보건행정과장은 “수

능 이후 청소년들은 해방감으로 인해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10대~20대는 유명인에 대한 모방심리가 강해 마약투약에 대한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젊은층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압송 중 또 도주’ 경찰 피의자 관리 도마 위

우즈벡 절도범 도주…수갑 풀어줘 화근

마약사범 놓치는 등 2년새 5번째 도주극

광주에서 또 다시 압송 도중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피의자 인권을 감안해 수갑을 풀어준 것이 화근으로, 수갑사용에 대한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뒤 경찰을 때리고 도망간 혐의(절도·도주·공무집행 방해)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께 동부경찰서 앞마당에서 압송되던 중 자신을 때려온 지역 지구대원 B경사를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달아난 A씨는 도주 3시간 15분 만인 오후 9시 20분께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지역 한 대학교에서의 여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주는 경찰의 허술했던 피의자 관리가 화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직전 A씨에게는 수갑 등 최소한의 도주 방지책이 채워지지 않았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업주로부터 A씨를 인계받은 직후 잡화점 매장에서 수갑을 채웠으나 이후 경찰차 안에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는 경찰서 도착 직후 자신을 압송하려는 지구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도주 방지책 부재는 잇단 탈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피의자들의 도주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2년 사이 5건에 이른다.

실제 지난 9월 광주 북구 한 주택

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C씨가 경찰과 함께 주변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과정에서 달아나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지난 6월에는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 35시간 만에 모두 검거됐다.

또 지난해 7월 광산구 하남파출소에서는 테이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나다가 7시간 만에 잡혔고, 이보다 6개월 앞선 1월에는 광주 북부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병원에서 놓치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수갑을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전날까지 이어진 사건 모두 경찰이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장에서는 수갑과 같은 도주 방지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피

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른다고 설명한다. 수갑은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우려가 보이는 자들에겐 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설명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4항에서도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구속된 유치인을 다루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도 수갑의 사용 범위를 출감·도주·극단적 선택·폭행 우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A씨가 유치인이 아니고 압송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등에서 수갑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사용이 인권 등 이유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피의자 도주로 인한 추가 범행과 시민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아닌 지침의 세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광주환경연합 “지역 축제 일회용품 남발, 분리배출 미흡”

실태조사결과 행사장 39곳 모두 일회용 음료컵 사용

광주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지역 행사장에서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지역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행사·축제장 39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행사장 39곳 모두 일회용 음료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용된 일회용 품목은 비닐봉지 30곳(75%), 일회용 숟가락 19곳 (47.5%), 일회용 접시 18곳 (45%) 순으로 많았다.

특히 먹거리 체험 행사에서 일회용 접시와 수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된 행사장은 13곳(32.5%)에 그쳐 쓰레기가 혼합돼 버려지기도 했다.

특히 남구의 ○○한마당 축제에서는 음식물·일반·재활용쓰레기가 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 공공기관 주체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가 보조금·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금지를 권

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품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 국장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은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이 발생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지원하는 사업 중 일회용품을 구입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사업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대화용품 활용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광주·전남 국가암관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관리 전략 수립·암 사각지대 발굴 등 높이 평가



광산구는 지난 17일 화순전남대학 교병원에서 열린 ‘2023년 광주·전남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광주광역시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전남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역민을 위한 암관리사업의 추진을 독려하는 취지다.

광산구는 지역주민의 지역·연령 현황을 분석해 암종별 특성화된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암 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동기 기자

동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탄력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시작…성공적 추진 총력

동구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동구는 지난 8월 투자심사 의뢰 후 행안부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동구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수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빠르게 통과함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친환경 테마파크 등 주민 행복공간 조성과 동구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수소 에너지원이 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이송·활용 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거·교통·인프라·특화 요소 등 4가지 분야이다.

▲주거 분야는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열을 공급 ▲교통 분야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버스와 수소 청소차를 시범 운영 ▲인프라 분야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안전운영센터와 수소 배관 및 열 배관 등을 매설 ▲특화 요소 분야는 수소에너지 홍보관·에너지 놀이터·스마트 팜·가족 테마파크 등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전남 5개 국립대
‘오지다 축제’…내달 1일



전남대학교는 다음달 1일 공과대학 코스모스홀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이 참여하는 ‘오지다’ 축제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남대와 광주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5개 국립대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신종호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AI)시대, 생각의 힘 키우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학생, 교수 워크숍을 비롯해 챗지피티(ChatGPT) 질문대회 결선, 5개 국립대 추천 도서 등이 소개된다.